

# 北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김일성 생일까지 지속 우려

### 순항미사일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 김여정 담화 계기로 시험발사 본격 시작

### 전문가들, 다음달 15일까지 발사 지속 우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다음달 중순 김일성 생일까지 추가 발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25일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앞선 지난 21일에는 서해를 향해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1월22일에도 서해쪽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역시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권 교체 시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시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에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 향해서도 "4년간 불편함을 주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문가들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17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북한제재 비난 발언과 대북 인권 공세 강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적어도 오는 4월15일의 김일성 생일까지 무력시위를 지속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4월15일 태양절까지 일련의 계획을 갖고 군사 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커 보인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대북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약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여지를 축소시키며, 한국 내 대북여론을 악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대북 대치국면 조성 등 역

풍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 친서교환을 통해 정세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한미 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수요가 증대되게 되고 한반도 긴장과 동북아 신냉전의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점에서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 북한 발사 직후 탄종과 사거리 발표

### 한미, 일본과 다른 발사지점·사거리 공개

### 합참 "우리 군 정보자산, 아주 높은 수준"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발사 사실 공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우리 군 당국이 일본에 비해 더 늦게 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농장 발표라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분석 결과, 한미 군 당국의 분석이 일본에 비해 더 정확했음이 확인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먼저 공개한 쪽은 일본이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가 이뤄졌다"고 발표했고 이 내용은 NHK 등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7시9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강원 원산에서 발사됐으며 약 250km를 비행한 뒤 북한 동부 연안부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까지 내놨다.

하지만 일본 발표는 부정확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7시24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국방부 기자회견에 알렸고, 8시15분에는 발사 지점이

## 日보다 北미사일 발사 늦게 발표한 韓, 분석은 더 정확

함경남도라고 특정했다.

이어 11시19분에는 발사 시점이 함경남도 함주군이며 사거리가 약 450km, 정점고도는 약 60km라고 발표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분석을 거쳐 발표한 발사지점과 사거리, 정점고도가 모두 일본측 발표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폭스뉴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우리 군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움직임) 실시간 포착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보도가 나온) 그 시간대가 실제 상황 관리 단계였다"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분석 평가해서 제공해야 한다. 부정확한 초기 정보가 나가는 것보다 정확한 게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감시태세나 정보자산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발표 시점에 관해) 경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합참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포착한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b>호남신문</b> www.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b>서울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직통 (062) 228-2580</b>	<b>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